

# 한기주, 고교야구 지도자로 재등판



은퇴를 하고 서울 우신고에서 코치로 변신한 한기주(오른쪽)가 투수들의 하체 훈련을 돕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을 끝으로 14년의 굴곡진 야구 인생을 마무리한 '10억 팔' 한기주가 지도자로 변신했다. 한기주는 서울 우신고에서 투수들을 훈련하며 은퇴 후 첫걸음을 걷고 있다. 그는 "힘들지만 재미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1월 한기주는 은퇴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 계약금 주인 공인 한기주의 사연 많은 야구는 14시즌으로 끝이 났다.

광주 동성고 출신인 한기주는 지난 2006년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KIA 타이거즈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으로 주목받았지만 부상이 한기주의 앞을 막았다.

팔꿈치 통증에 시달린 그는 '10억 팔'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마운드에서 서야 했고, 2009년 팔꿈치 수술을 시작으로 부상의 늪에 빠졌다. 이후 두 차례 손가락 수술을 받은 그는 2013년 어깨 수술을 하며 힘든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2015년 7월 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1064일 만에 복귀전을 치른 한기주는 2016년 4년 만에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2017 스프링캠프에서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그는 같은 해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새출발을 위해 트레이드를 요청한 한기주는 2017년 11월 외야수 이영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한기주는 트레이드 이후 2018시즌 33경기에 등판했지만, 올 시즌에도 부상에 신음하면서 결국

**부상에 꺾인 14년 선수생활**

2009년 팔꿈치 수술 후 부상의 늪 재할→트레이드 등 복귀위해 노력 올해 한 경기도 못 뛰며 은퇴 결심

**서울 우신고에 새 등지**

KIA 선배 조태수와 의기투합 신생팀 투수들 훈련 맡아 "아쉬움 있지만 후회는 없어 소통 잘되는 지도자 될 것"

은퇴를 선언하고 간절했던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한기주는 "물론 아쉬운 점은 많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많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깔끔하게 떠난 것 같다. 생각해봤자 속상하기만 할 뿐이다. 후회는 없다"고 은퇴 심경을 밝혔다.

그는 KIA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선배 조태수와 우신고에서 의기투합했다. 우신고는 서울고에서 활약한 조태수 코치에게

사령탑을 맡기며 올 시즌 야구부를 창단했다. 1979-1980년 야구부가 잠시 존재했던 만큼 엄밀하게 말하면 재창단이지만, 사실상 신생팀이다. 그만큼 아직 선수 층이 얇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속에 팀이 만들어져가고 있다.

한기주는 "10월 중순부터 팀에 합류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재미있다. 애들이 나에게 배울 것이 있고, 나도 애들한테 배우고 있다"며 "애들이 좋아야 기술도 발휘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공을 던지고 치는, 좋아하는 것을 하려한다. 하지만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막상 프로에 가서 하려고 하면 힘에 부쳐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력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기주는 마운드 위 '자신감'도 강조했다.

그는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좋아도 자신감이 없으면 마운드에서 아무 것도 못 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며 "학생 시절 경험과 프로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나도 많이 배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압도적 스포츠 선수는 NBA 르브론 제임스

USA투데이가 최근 10년 평가...박인비, 한국 유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31위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35·미국)가 최근 10년간 전 세계 스포츠의 모든 주목을 통틀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제임스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신문 USA투데이가 선정한 '최근 10년간 최고의 선수' 부문과 미국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최근 10년간 가장 압도적인 선수'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USA투데이는 3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투표

를 시행해 1위 표 25점, 2위 표 24점 순으로 점수를 부여, 점수 합산으로 순위를 매겼다.

이 결과 제임스가 786점을 얻어 781점을 획득한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근소하게 제쳤다.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톰 브래디(미국)가 3위,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미국)가 4위였다.

5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보면 우사인 볼트(육상·자메이카), 마이크 트라웃(야구·미국), 스테

폰 커리(농구·미국), 리오넬 메시(축구·아르헨티나), 마이클 펠프스(수영·미국), 노바크 조코비치(테니스·세르비아) 순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자체 선정 순위에서도 제임스와 윌리엄스, 브래디 순으로 1~3위가 형성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순위에서는 '골프 여제' 박인비(31)가 31위에 올라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두 매체는 최근 10년간 스포츠 분야 최고의 장면도 선정했다. USA투데이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시카고 컵스가 2016년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라 108년 만에 우승의 환을 풀었던 장면을 꼽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3년 엘라베마대와 여번대의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풋볼 경기를 지목했다.

/연합뉴스

## 류현진, 성탄 선물 만나

토론토·미네소타·LA에인절스 등 관심...보라스, 연내 계약 가능성

에이전트 스포츠 보라스는 류현진(32)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안겨줄까.

미국프로야구(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다년간의 거액 계약을 앞둔 류현진이 성탄절 전에 잭팟을 터뜨릴지 관심이 쏠린다.

MLB닷컴은 22일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이 류현진에게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추정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토론토는 FA 개장 초반부터 류현진에게 관심을 둔 팀이다. 류현진을 영입해야 한다는 지역 언론의 성화도 대단하다.

토론토를 필두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미네소타 트윈스, 그리고 원소속팀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이 류현진의 새 등지로 거론된다.

이달 초 윈터미팅 기간 FA 1~3순위인 제릿 콜(뉴욕 양키스·9년 3억2400만달러), 스티브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7년 2억4500만달러), 앤서니 랜덴(에인절스·7년 2억4500만달러)이 모두 새 등지를 찾았다.

콜과 스트라스버그 다음 등급으로 분류된 투수 중 류현진과 쌍벽을 이룬 매디슨 범가너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5년간 8500만달러를 받는 조건에 16일 도장을 찍었다.

거물급 고객에게 원하던 선물을 선사한 보라스는 류현진과 좌완 댈러스 카이클의 계약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그간 보라스의 고객으로, 한국 야구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빅리거들은 모두 크리스마스 이전에 대형 계약을 완료했다.

'코리아 특급' 박찬호는 2001년 12월 21일, 6년간 6500만달러라는 당시 최고 대우로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 합의 이틀 후인 12월 23일 박찬호는 텍사스 입단식도 치렀다.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도 2013년 12월 22일 텍사스와 7년간 1억3000만달러라는 메가톤급 계약에 합의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후인 12월 28일 입단식에 참석했다.

미국 언론은 류현진이 범가너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범가너의 평균연봉 1700만달러를 넘어 최대 2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류현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19년에 장기 계약을 마무리 짓고 2020년을 기본 좋게 열어젖힐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기성용 '자유의 몸'

뉴캐슬 감독 '이적해도 좋다'...사우디·미국 리그 등 차기 행선지 거론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에서 '개집 휴업' 중인 기성용(30)이 올겨울 이적시장에서 등지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스티브 브루스 뉴캐슬 감독은 21일(한국시간) 영국 신문 '실즈 가제트'와 인터뷰에서 "기성용을 포함해 2~3명의 선수가 이적하도록 허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루스 감독은 "나이가 됐는데 꾸준히 뛰지 못한다면 다른 팀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나도 현역 때 주말 경기에 못 나서서 답답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기에 잘 안다"고 말했다.

2018년 여름 뉴캐슬로 이적한 기성용은 2018-2019시즌 거듭된 부상 속에 정규리그 18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올렸다.

그를 데려간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물러나고 브루스 감독 체제가 된 올 시즌에는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고작 세 차례만 그라운드를 밟았다. 2라운드 노리치시티전에서 딱 한 번 선 발 출전했고 6라운드 브라이턴전, 7라운드 레스터시티전에서는 교체 출전에 그쳤다.

기성용과 뉴캐슬이 맺은 2년짜리 계약은 내년 여름 끝난다. 뉴캐슬로서는 활용하지 않는 기성용을 올겨울 이적료라도 받고 내보내는 게 이득



이다.

기성용의 차기 행선지를 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등 여러 곳 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 나달, 우승으로 시즌 마무리

무바달라 테니스 챔피언십 男 단식 결승 치치파스 2-1 제압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2019년을 우승으로 마무리했다.

나달은 22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무바달라 테니스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6위·그리스)를 2-1(6-7(3-7) 7-5 7-6(7-3))로 제압했다.

1세트 게임스코어 5-4로 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해 첫 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내준 나달은 마지막 3세트에서도 게임스코어 4-2로 리드를 잡았다.

치치파스가 다시 나달의 서브 게임을 가져가 승부를 타이브레이크로 넘겼지만 이번에는 나달이 타이브레이크를 7-3으로 잡고 3시간 15분이 걸린 경기를 끝내며 우승 상금 25만달러(약 2억 9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 대회는 해마다 12월 또는 1월에 세계 정상

급 선수들을 초청해 치르는 이벤트 대회다.

올해는 나달과 치치파스 외에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 카렌 하차노프(17위), 안드레이 루블료프(23위·이상 러시아) 등 6명이 초청받았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28위·제네시스 후원)도 2년 연속 이 대회에 나왔으나 올해는 하차노프와 루블료프에게 연달아 패해 6위로 대회를 마쳤다.

나달은 2010년, 2011년, 2016년 1월과 12월 대회에 이어 이 대회에서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5차례 우승은 나달이 최다다. 지난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가 4차례 우승했다.

3위 결정전에서는 조코비치가 하차노프를 2-0(7-5 6-3)으로 물리쳤다.

/연합뉴스